

책임기로 키우는 논술능력

이강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령모개식의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아래 금년도 대학입시에는 논술고사가 입학당락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전한다. 더욱이 내년부터 본고사 대신 논술고사의 비중이 더욱 커지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대학입시의 조류를 재빨리 타기 위해서, 출판사나 입시학원에서는 논술학습지를 서둘러 발간해서 도하 신문 제1면 광고란을 크게 장식하고 있다.

논술고사에 대한 사회적 열기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어떤 논술학습지 광고내용의 한 구절은 이렇게 써여 있다. “과연 논술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논술의 기본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주변 지식과 통합적인 응용능력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주의, 주장의 올바른 전개가 필수적입니다...” 이상의 광고내용은 물론 옳은 주장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학입시자들의 논술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시적 앰풀주사 효과이거나 필요요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요건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예술적 재능의 개발은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일시적인 집중학습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설혹 그러한 학습이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교육과정은 아니다.

신문광고에서 강조하는 논술에 있어서 ‘논리적 서술의 능력’이라는 것도 예술적 재능의 개발과 같이 단시일 내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능력이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세계관,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상상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느냐는 능력인 것이다. 논리적 능력이란 곧 ‘생각’ 즉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형식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생각’ 즉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한 좋은 형식은 좋은 내용을 통해서 이뤄지지, 조잡하거나 공허한 내용에서 생성될 수 없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높고, 깊고, 그리고 넓게 배양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생활화하는 이른바 독서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해 흥미를 갖고 가까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감정입’ 혹은 동기성을 자극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들 스스로 책을 가까이하거나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사다줘야겠지만, 그보다도 자녀들을 가령 대형서점과 같은 문화공간에 데려가 서점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 책을 사고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등 대형서점의 지적 분위기에 젖도록 유도하는 길,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책을 사든 안 사든 책방에 들락거리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된다.

그런 생활습관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취미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대학입시에는, 국내 작가의 소설전집이나 세계문학전집을 독파하고, 철학 입문서나 사회과학·사회사상에 관한 저서도 읽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학교 5,6학년 때부터 일간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신문내용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세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주변세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뿐 아니라, 신문을 오랫동안 읽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의 구성, 흐름, 논리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필자는 신방과 학생들에게 매일 신문의 사실, 논평, 그리고 칼럼을 읽도록 강요(?) 할 뿐 아니라, 사실을 매일 그대로 베껴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은 어떤 주제(쟁점)를 선정해서 주제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논자의 의견·주장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전형적인 논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실 베껴 쓰기를 1년이 아니라 몇달만 계속 실천하게 되면, 대학입시의 논술능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표지 인터뷰	2	‘도시역사’에 묻어난 일제 침탈의 실상 《일제 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펴낸 손정목 교수
초점	4	국내 고급독자 파고드는 해외의 거장들 보르헤스·투르니에·푸코 등 일정 독자층 확보
출판계 소식	5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외
출판 시평	6	여성독자·여성필자·여성취향의 책문화-박덕규
종합 서평	7	여성작가들이 포착한 미세한 ‘삶의 결’-황광수
리뷰	8	이젠 침묵 깨야 할 페미니즘 비평-장미경
확대 서평	9	‘어머니, 모성’ 그 페미니스트적 상상력-김효선
저자 초대	10	《한국 전통사회의 정신문화 구조양상》 펴낸 정종화 교수
출판 화제	11	우리시대의 아물기 힘든 상처 ‘광주’
화제의 신간	12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정보 라이트	13	번역물 찾아내기 ②-조승훈
탐방 취재	14	뛰면서 공부하는 젊은 영업인들 ‘책누리’ ‘베스트클럽’ 등 소모임 스타디 활발
출판 포럼	16	한국 출판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중한 (토론 : 윤청광/김주팔/홍우동/이강수/노병성)
서평	21	민속학회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배도식
	22	천정웅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황태연
		구승희 외 《아나키·환경·공동체》-이효걸
	24	아른하임 《중심의 힘》-박창호
		이광호 《환멸의 신화》-이성욱
책과 영상	26	인류미래를 향한 책과 영상의 미학
재미있는 기획산책	27	창조의 일기를 흠치는 열쇠-장익순
이 책 그 사람	28	《자연의 슈퍼모델》 펴낸 현원복씨 《책을 만나러 가는 길》 펴낸 손수호씨
	29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신화》 펴낸 유시주씨 《육성과 가성》 펴낸 김광규씨
새책 흐름	30	품위와 재미 느끼는 클래식음악의 세계·외 / 문학·예술
	32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들·외 / 어린이
	34	신간안내 / 42 새로 나온 책